.....fl 7¿ø¨£ 2011.6.29 12:35 PM ˘ ` 24 ·®Œ 2400DPI 175LPI
CMYK

해외건설 수주 - 지난해 수준 유지할 수 있을 듯

- 상반기 수주 작년의 70% 규모, 하반기 들어 급증세 예상 -

김 태 엽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

최근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로 몰리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의 재정 위기는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 GDP 성장률 하향 조정 분위기와 맞물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그리스 사태는 지난달 21일 새 내각 신임안의 의회 통과로 유로존이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제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8년 말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시작된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인해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발전소, 도시 개발, 철도 등과 같이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반기 수주 비교적 '양호'

2011년은 연초부터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그리고 내전 양상으로 전개된 리비아 소요 사태의 중동 국가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조성되면서 출발했다. 이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사태 역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글로벌 원전시장 축소 움직임 등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시장 불안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연초 수주 금액이 작년 UAE 원전과 같은 초대형 공사 수주가 없었던 탓에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으로 출발했으나, 감소폭이 점차 줄어 6월 현재 235억 달러를 기록하여 70% 수준까지 따라잡은 상황이다. 일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리비아 사태와 결부시켜 2011년 수주가 급감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UAE 원전 수주에 따른 기저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중동에서 173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계약 금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및 광케이블 설치 공사, 가스처리 시설 등 총 95억 달러 규모를 수주한 사우디가 2011년 중동 지역 수주를

.....fl 7¿ø¨£ 2011.6.29 12:35 PM ˘ ` 25 ·®Œ 2400DPI 175LPI
CMYK

견인하고 있는 양상이다. 아시아에서의 수주는 전년 대비 60% 수준인 44억 달러에 그치고 있는데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요 공사의 계약 네고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에서 가스 플랜트 및 호텔 프로젝트 수주가 성사되면서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실적이 증가했다. 이 밖에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에콰도르, 파나마 등에서 자동차공장, 정유공장,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나 계약 금액은 전년의 50%대에 머물고 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올 상반기 역시 그 비중이 75%를 상회하고 있다. 발전소, 정유공장, 가스 개발, 석유화학공장 등의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졌다. 토목 분야의 수주는 사우디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광케이블 공사를 수주한 데 힘입어 올 들어 세 배 가량 수주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해 왔던 용역 분야의 수주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010년의 사우디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4.9억 달러)과 같은 초대형 용역사업 수주가 올해는 아직 없기 때문이며, 전체적인 계약 건수는 80건 정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활발한 진출 상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준 유지할 듯

2011년 하반기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네고 중인 공사의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연말이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한 최근 수년간의 발주 확대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우리 업체의 수주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MEED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5년 간 GCC(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의 공사 발주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특히, 사우디에서만 4,300억 달러 규모의 발주가

지역 및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위 : 건, %, 백만 달러)

지역	2010. 6. 22		2011. 6. 22		공종	2010. 6. 22		2011. 6. 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0 (100.0)	35,611 (100.0)	233 (100.0)	23,509 (100.0)	계	260 (100.0)	35,611 (100.0)	233 (100.0)	23,509 (100.0)
중동	52 (20.0)	25,980 (73.0)	46 (19.7)	17,255 (73.4)	토목	25 (9.6)	1,077 (3.0)	29 (12.5)	2,969 (12.6)
아시아	164 (63.1)	7,562 (21.2)	143 (61.4)	4,391 (18.7)	건축	84 (32.3)	2,910 (8.2)	63 (27.0)	2,012 (8.6)
태평양, 북미	14 (5.4)	501 (1.4)	5 (2.1)	415 (1.8)	플랜트	40 (15.4)	30,082 (84.5)	40 (17.2)	17,728 (75.4)
중남미	7 (2.7)	954 (2.7)	10 (4.3)	529 (2.2)	전기	18 (6.9)	279 (0.8)	14 (6.0)	320 (1.4)
아프리카	9 (3.4)	314 (0.9)	17 (7.3)	796 (3.4)	통신	9 (3.5)	449 (1.2)	5 (2.1)	52 (0.2)
유럽	14 (5.4)	300 (0.8)	12 (5.2)	123 (0.5)	용역	84 (32.3)	814 (2.3)	82 (35.2)	428 (1.8)

.....fl 7¿ø¨£ 2011.6.29 12:35 PM ˘ ` 26 ·®Œ 2400DPI 175LPI
CMYK

올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는 네고 중인 공사의 계약이 본격화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연말이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계획 중이며, UAE에서도 4,000억 달러 정도의 공사 발주가 추진되는 등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민간부문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관급공사 발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확정된 카타르에서도 스포츠 시설 및 호텔 인프라, 도로 등 총 700억 달러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중동은 유가의 등락에 따른 발주 규모 변동 폭이 큰 지역으로 현재 유가가 예산 편성 기준 유가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공공사 발주 물량에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초부터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현지 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 대형 플랜트 공사에서의 유럽 기업과의 수주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의 가격 경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비아의 경우에는 정국 안정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종료되면 전후 복구사업 등을 포함, 우리 업체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진출 업체들의 경우 악조건에서도 필수 요원이 잔류하여 발전소, 병원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현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향후 수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리비아를 포함한 일련의 소요사태는 중동 각국이 민심 이반 방지 차원의 각종 인프라 공사 발주를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는 주요 계약 예정 공사의 네고가 길어지면서 상반기에는 수주 금액이 다소 더디게 증가했지만, 하반기 중 수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현재 10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네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인프라 발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플랜트 및 도로 공사 수주가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의 성장 지속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중앙아시아 산유국 중심의 플랜트 부문 발주 증대로 인해 앞으로 안정적

.....fl 7¿ø¨£ 2011.6.29 12:35 PM ˘ ` 27 ·®Œ 2400DPI 175LPI
CMYK

인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제 규모가 작고 재정 상태가 취약하여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수주는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우간다 등 산유국과 DR콩고, 카메룬 등 천연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6월 현재 8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년 동기의 두 배가 넘는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수주 활동 중인 수건의 중 ·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하반기 중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경제 발전과 함께 관련 공사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차관 공사와 함께 자원 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시설 개발, 대형 주택단지 건설 등에 우리 업체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남미에서는 올해 들어 아직 수주 금액이 작년 수준에 미치지 않고 있지만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에서 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가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따라 작년 이상의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주 경쟁력 '최고 수준'

이러한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우리 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이 현재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하반기 수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현재 해외건설 수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EPC 분야에서 우리 업체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업체들과 비교한 가격 경쟁력 우위와 복합되어 수주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을 무기로 토목, 건축 부문에서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후발 개도국의 경우 플랜트 공사에서는 아직 기술력이나 수행 실적이 우리 업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끼리의 지나친 수주 경합이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업체들과의 가격 경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 발주처들의 우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해외건설협회와 KOTRA가 실시한 유망 발주처 초청 설명회에 전 세계 30개국 64개 발주처가 방한하여 총 8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열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유망 발주처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올해에는 특히 주요 발주처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다.

그만큼 해외 발주처가 우리 업체들의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내 건설공사 수주 규모는 2007년 130조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03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도 별다른 회복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마저 장기화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간 크지 않다. 이러한 때 민간과 정부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글로벌 건설시장을 향한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성공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CERIK